

요양보호사들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

이봉숙*

¹세한대학교 간호학과

The Experiences of Long Term Care Workers Who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at Home

Bongsook Yih^{1*}

¹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 약 치매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및 이의 돌봄 주체인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치매노인 돌봄경험을 통해 돌봄행위 내면에 배어 있는 돌봄의 의미를 알아보고 행위수행의 촉진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질적인 돌봄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서술묘사적 방법을 적용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치매교육과정을 이수한 10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자료는 질적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직업선택의 기준, 역할수행위기, 그리고 역할 수행 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넓은문’, ‘돌봄의 상품화’ 등이 직업 선택기준으로 도출되었으며, 역할수행적 측면에서는 역할위기로 ‘내마음의 벽’, ‘질병의 벽’, ‘사회적 벽’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마지막, 수행전략으로 ‘나는 촛불이다’, ‘자율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적 효의 실천자’ 등이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돌봄이 가정에서 무보수 성차적 역할로 가치평하 되던 사회적 고정관념으로부터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상품브랜드로 재탄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 of long-term care workers who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at home. A descriptive exploratory methodology was applied within the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10 long-term care workers who had at least 3 years working experience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The data were analyzed within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b selection, struggling and strategies for the role accomplishment were found to be the main categories. This study emphasized the role of caring as social filial piety from the concept of nonpayment of work in the family.

Keywords : Caring, Long-term Careworker, Dementia, Qualitative Research, Wome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기존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과 노부모부양은 여성들이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성차적 역할로 여겨지고 있었다[1]. 이러한 성차적 역할과 가정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직업군으로 요양보호사를 들 수 있다.

2008년 7월부터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에서 활용되던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 수준에서 지식과 기능을 강화한 인력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하였다[2,3]. 요양보호사들은 시설 및 재가 복지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활용되었으며 치매와 같은 신경정신행동장애를 가진 노인성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주된 돌봄 인력으로 자리 잡

본 논문은 세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Bongsook Yih(Sehan University)

Tel: +82-61-469-1309 email: yihb@sehan.ac.kr

Received December 14, 2015

Revised (1st January 25, 2016, 2nd February 3, 2016)

Accepted February 4, 2016

Published February 29, 2016

게 되었다. 그러나 치매인구의 급증 및 증상의 다양성과 장기화로 인해 전문성을 강화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의 증대로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중 치매특별 등급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치매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치매에 대한 전문적 교육 80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4,5]. 이러한 교육을 통해 돌봄대상자는 기존 서비스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돌봄제공자인 요양보호사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반응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고 치매의 질병특성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연구[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에게 나타난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2008년 국가자격 요양보호사제도 적용 시 입증되었던 바와 같이 교육을 통한 직무만족도는 높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적 동기요인이 같이 작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치매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지닌 치매노인 돌봄의 의미 및 활동 지속성의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강화시켜주는 것도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돌봄행위 내면에 배어 있는 돌봄의 의미를 알아보고 행위수행의 촉진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질적인 돌봄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치매노인 돌봄 경험을 심도 있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돌봄경험을 서술묘사적 방법을 적용하여 조명해 보고자했다[6]. 이방법론은 특정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 사실성에 바탕으로 둔 현안을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할 때 적용되는 방법론이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경험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단위와의 상호작용을 조사해서 현상을 패턴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근거이론을 구축하는 기초단계로 볼 수 있다[7].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돌봄전략에 초점을 두고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내면세계를 심도 있게 접근해 보고자 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된 요양보호사관련 연구는 계량적 측면에서의 직무만족관련연구[8,9,10]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세계를 심도있게 접근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서술묘사적 연구방법은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의 역할 수행 행위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경험을 패턴화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 본다.

2.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하여 치매교육을 받은 10명의 요양보호사를 인적 네트워크 자료수집 방법(network sampling technique)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이는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 주어 질적으로 의미 있고 심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선호되고 있는 방법이다[11,12]. 본 연구에서는 J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재가 치매노인 돌봄 경력 1년 이상에 요양보호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자료 기준으로 삼았으나 참여자들의 평균 돌봄 경력은 6.4년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30대 1명, 40대 3명, 50대 5명, 60대 1명 등이었으며 대졸 1명과 고졸 3명, 중졸 3명, 초졸 3명이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기혼자들이었으며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이전에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2014-N2)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자로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그리고 비밀보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다.

2.2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이며 인터뷰와 현장노트 및 메모를 통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모든 인터뷰는 M시 여성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치매환자를 돌보는 경험은 어떠하십니까’란 인터뷰 질문을 중심으로 직업선택동기, 돌봄전략, 위기극복, 스트레스관리, 자신의 직업에 대한 평가, 여성직업, 주부, 가사일 등의 촉진질문을 통해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증취득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의 돌봄과정을 자아

-사회-직업-가족이라는 연결선상에서 재조명 하였다. 인터뷰시간은 평균 2시간이었으며 최소 1시간 40분 정도였으며 인터뷰에 있어서 유사한 질문 과 반복질문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신빙성[12]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3 자료분석

필사된 인터뷰 자료는 질적주제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6]. 질적주제내용분석 방법은 내용의 발생 빈도수 차원이 아니라 연구질문과 상호 연결되어 있는 자료의 응축된 참의미 그리고 연구자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해 내는 방법으로 연구자의 직관과 심층이해가 우선시 되어져야한다[6,13]. 이를 위해 인터뷰 원자료는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필사함은 물론 현장노트와 메모를 중심으로 자료의 내·외적 상황을 모두 담아 낼 수 있도록 자료와 친숙해 지고자 하였다. 이로써 Sandelowski[12]가 제시한 질적 연구 자료의 신뢰성 확보기준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표상적 범주화 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류하는 단계를 거쳤다. 즉 비슷한 자료들 끼리 모아 범주화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돌봄경험을 탐색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분류된 범주들을 보다 추상적으로 압축함과 동시에 특성을 구체화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제 의미 구축과 정으로 연구자의 직관력이 필요시 되는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연구자와 자료의 이원적 관계에서 독자라는 제3의 요소를 부가시켜 상호 응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련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 도출된 범주들은 질적간호연구자 2인과 치매요양보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1인의 피드백을 통해 분석 및 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증단계를 거침으로써 연구결과의 질 확보[12,13]를 기하였다.

3. 연구결과

요양보사들의 치매노인 돌봄경험은 여성으로서 사회적 직업선택 시점부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까지를 연속선상에 놓고 살펴보았으며 직업선택의 기준과 역할수행 그리고 수행 전략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3.1 역할선택기준

역할선택 기준은 사회적 기준에서 바라본 “나”라는 여성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스스로 규정짓고 있는 직업선택 기준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업선택기준과 선택 동기 요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넓은 문’과 ‘돌봄의 상품화’가 주제로 도출되었다.

1) 넓은 문

넓은 문은 직업선택의 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연령, 성별, 학력제한 등이 없는 직업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안정적 직업이라는 점이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력과 단절된 가정주부라는 현 위치에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연속적인 직업이 요양보호사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직업선택의 기준은 지원요건과 선택기준 사이의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전문자격증 소지 직업이라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내가 60이 다 돼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기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상 하던 일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니까 쉽게 하기로 맘먹은 거지요 우리동네 아주머니들 봉고차로 한차로 다 가서 배웠어요

애들은 다 컸고 집에만 있었는데 이 나이에 식당에서 일하는 것 보다 자격증 딸 수 있는 일이 낫지 않을까 싶어 하게 되었어요

2) 돌봄의 상품화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주부로서 오랜기간 체화된 가족 돌봄의 무보수 돌봄상품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적영역으로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특수 브랜드로 요양보호사를 선택하고 있었다. 즉 스스로를 돌봄의 베테랑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재화의 획득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에 대해 전문직 여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지요 내가 늘상 하던 일이니까 잘 할 수 있고 또 잘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것이니까 더 좋지요 집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애들한테도 쓰고 나를

위해서도 쓰고.... 못하는 일 새로 배워서 하라면 힘들지만 이걸 그래도 쉽다 생각했지요.

내가 애들 다 키우고 이일저일 해봤지만 사람으로 인해 보람을 얻고 자격증을 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요.

3.2 역할위기

역할 위기는 역할 수행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적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아적 측면, 업무특성,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각각 조명해 보았다. ‘내마음의 벽’, ‘질병의 벽’, ‘사회적 벽’ 등이 핵심주제로 각각 도출되었다.

1) 내마음의 벽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주체는 행위자 자체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자신의 일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직업의 만족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 자신의 업무적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익숙한 일이라 생각하여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병수발을 드는 직업에 대한 가치 주입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인정하기까지 내면적 갈등의 시간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저는 저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이 내가 이일 하는걸 알까봐 참 전전긍긍했어요 ‘저사람 이런 일까지 하나’라고 그럴까봐 일하면서 아는 사람 있나 없나 부터 살핀 것 같아요....그렇게 나를 내려놓기 까지가 힘들더라고요 그걸 인자 딱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데 아휴 처음에는 그게 저를 제일 힘들게 했어요.

위의 내용은 돌봄수행자가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시작하고는 있지만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개인에게 어떻게 배어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 질병의 벽

연구참여자들은 체화된 역할 행위 및 교육을 통해 돌

봄이라는 행위수행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치매라는 질병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돌봄기술을 요하는 새로운 돌봄상황에 직면하게된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상황에 초점을 두고 도출된 주제가 ‘새로운 벽’이다.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다양한 정신행동증상이 발현되는 질병으로 도둑망상, 학대망상, 질투망상 그리고 다양한 돌발적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행동에는 보살핌이라는 기본적 돌봄 기술 외에 전문적 돌봄기술이 요구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빚어지는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은 억울함, 속상함 등이며 주위의 지지체계(환자가족)가 부족할 경우 더욱 극심한 업무적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토로하고 있다.

그(치매)어르신 딸내 가족하고 저만 있는데 자꾸 내가 금반지를 가져갔다는 거야. ‘이 도둑년’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거 안 해도 밥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고생인가 싶고.. 그 딸도 치매에 대해 잘 모르게 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내부모도 못 모셨는데 남의 부모 모신다고 이 고생하나 싶으게 눈물이 나지요.. 지금이야 치매교육을 받으니까 ‘아 그러는 것도 질병이라서 그랬구나’ 이해하지만 그때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서럽지요.

따라서 위에서 토로하고 있는 경험은 업무자체에서 느끼는 지식과 기술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어려움이며 치매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3) 사회적 벽

사회적 벽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편견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요양보호사를 파출부로 인식하고 있어 직업적 기대와 현실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내가 들었는데 내 아는 사람 일 나가는 집 아들이 그 동네 주민을 만났나봐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으니깐 그 집 아들이 ‘우리집 파출부예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일하던 요양보호사가 그 집을 일을 다 도맡아 해준거야. 칼자루를 그쪽(가족)에서 쥐고 있으니까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제.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재가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가족 또한 질병에 대한 교육과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 가족들도 나랏돈 받고 부모봉양하는 혜택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치매가 어떤 병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하고 우리가 어르신 돌보는 사람이지만 그 집 파출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하지요.

3.3 역할수행 전략

역할 수행전략은 연구참여자들이 역할 수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내면적 측면, 직업적 측면 그리고 업무역량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핵심주제는 ‘나는 촛불이다’, ‘자율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적 효의 실천자’ 등이다.

1) 나는 촛불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의 돌봄 역할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부여가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부여 중 대표적인 것은 인내와 희생의 연속선상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었으며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엄마 또는 주부로서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행해왔던 익숙한 체화된 전략을 직업에서도 행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돈만 생각한다면 이일을 못하죠. 가족도 안돌보는 병이 치매니까 내가 안돌보면 돌볼사람이 없는거여. 그러니까 내가 이승에서 복짓고 간단란 생각으로 하는 거지요. 아이구 인간은 다 불쌍해, 불쌍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희생하면 다 좋으니까.....나는 내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나는 촛불이다 인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인내와 희생에는 직업적 보람과 위로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는 업무수행을 지속시켜주는 윤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올 때가 되면 어르신이 나와 있어, 내가 언제 오나 기다렸데. 정신이 온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쿡 찌르면서 ‘어이, 내가 그 짝(요양보호사) 때문에 아직 살아있어’ 그러지요, 고맙다고 하시고.....

2) 자율성과 지속성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장점으로 가장 크

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업무 시간 조정이 가능한 직업적 유연성과 돌봄 지속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저는 제가 개인적 스케줄에 따라 한두 가정에서 세넷 가정 정도 업무량을 조정할 수가 있고 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는게 제일 좋은 점이에요. 그런 직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저는 이일이 제가 그 어르신을 계속 돌보고 싶다면 끝까지 돌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았던 어르신 임종하실 때까지 제가 돌봐드렸구요, 지금도 그 자제분들이 고맙다고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연락주시고 그러세요.

3) 사회적 효의 실천자

연구 참여자들은 요양보호사라는 사전적 정의보다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스스로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가족에게 제공되던 돌봄이라는 행위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으로 브랜드화하여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며 효의 수행을 가족에서 사회로 이행하여 실천하고 있는 효 메신저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효의 실천자’로 명명하였다.

가족도 못 돌보는 어르신을 우리가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내부모 모시 듯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일을 해온지 8년이 됐거든요. 치매어르신은 한 3-4년 됐나봐요. 이제 어르신이 뭐가 필요한지, 왜 그렇게 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똥기저귀 갈아드리며 저 모습에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싶고,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가족을 보면서 나는 내일이 자랑스럽고 내가 아주 단단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사회에서 효를 실천하는 사람이예요 (자부심이 느껴짐).

4. 논의

본 연구는 치매노인 돌봄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격증 취득 시점부터 현장에서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현시점까지의 돌봄과정을 가족·직업·사회라는 범주 속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선택의 기준은 경제적 측면도 언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갖추고 있는 역량측면에 중점으로 두고 직업을 선택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직업선택기준인 재화의 획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14,15].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돌봄을 주 업무로 행하는 직업이다. 주로 가정주부로서 가족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년여성은 새로운 역할 수행에 있어서 자신이 갖추고 있는 역량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가족을 돌보던 주부로서의 역량과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사이의 연계성이 가장 높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6]. 이러한 돌봄이라는 주 역할은 대상이 가족에서 사회로 바뀌었을 뿐 역할 자체에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돌봄이 여성으로 당연히 행해야 하는 무보수의 성차적 역할임이 사회적으로 깊이 각인되어 오고 있는 현실[1]에서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은 경력단절 중년여성에게는 매력적인 직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15]에서도 언급된바와 같이 가족돌봄의 무보수 성차적 행위는 사회가 돈을 지불하고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인식 앞에서 직업인으로서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 존중에는 현실적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자아가 지닌 고정관념과 사회가 지닌 고정관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17]. 요양보호사는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과 자심감을 얻기까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부여가 미흡하였으며 사회적 편견 또한 전문돌봄직업이 아니라 비전문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돌봄이라는 행위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저평가되고 있는 직업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1].

치매돌봄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힘든 업무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 돌봄 제공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돌봄의 담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한 돌봄제공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이 아니라니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나”가 가지는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이 사회적 편견 및 고정관념 속에서 어떻게 수정 되고 변형되어 가고 있는지 짚어보는 일은 무보수 저평가되던 여성의 돌봄이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기존 가족돌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듯이 극복기제로 희생과 인내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6,18]. 이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중년주부들에게 이미 체화된 전략이므로 이러한 전략이 직업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1,19].

그러나 치매돌봄은 이미 가정에서 사회로 이관되고 있는 보편적인 역할적 함의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팔목할만한 점은 직업적 역할 재정의로 볼 수 있다. 돌봄 주체인 여성은 무보수 돌봄을 ‘사회적 효’로 브랜드화하여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돌봄이 무보수 성차적 역할에서 유교중심 사회인 한국인의 가치 척도 저변에 깔려있는 ‘효’의 가치를 살려주고 전통의 맥을 이어주는 전통계승적 의미로 재정의 되고 있으며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는 전통계승의 매신저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의 인식변화에 준하여 돌봄수요자 또한 변화되는 사회적 돌봄의 속성을 인지하고 상호존중의 가치확립이 확고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경험을 통해 돌봄직업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했다. 먼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직업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학력, 연령,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가정주부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비록 돌봄직업에 대한 낮은 자존감, 서비스 이용자의 돌봄에 대한 인식저하 그리고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이

해부측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역할 재정의의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돌봄이라는 무보수 성차적 역할의 고정관념이 점차 사회적 가치를 획득해 가면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경험을 토대로 요양보호사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보다 질 높은 장기노인요양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는 가족의 질환을 넘어 사회에서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질병이다. 비록 돌봄 제공자를 위한 치매이수교육 시간이 제시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무강화교육이 정규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가족을 위해 정신행동증상을 동반한 질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치매가족이 치매환자와 같은 돌봄 대상자이기도 함과 동시에 돌봄제공조력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재가요양서비스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시설요양서비스제공자의 돌봄경험에 대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시설요양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References

- [1] B. S. Yih, C. M. Kim, M. Yi, "Women caregivers' experiences in caring at home for a family member with dementia: A feminist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81-890, 2004.
- [2] Y. J. Yi, H. S. Kang, S. B. Kwon, J. H. Kim, Y. S. Park, H. M. Son, E. H. Lee, N. Y. Lim, K. S. Cho, H. J. Han, "Korean formal educational program for training care workers for the frail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6): 872-881, 2010.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0.40.6.872>
- [3] E. Y. Lee, H. S. Kang, K. H. Kim, K. S. Park, "Caregivers' experience of violence and coping with it in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2): 134-143, 2012.
- [4] National Insurance Service. Building an infrastructure for the senile elderly with dementia [Internet]. National Insurance Service, 2014 [cited 2014. April 24],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300101&page=1 (assessed Nov., 10, 2015)
- [5] National Insurance Service. Long term care insurance service for the senile elderly with dementia [Internet]. National Insurance Service, 2014[cited 2014. Dec 3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15858&page=1(Assessed Dec 9, 2015)
- [6] P. J. Brink, M. J. Wood, *Advanced design in nursing research*, London: Sage, 1989.
- [7] R. R. Parse, "Building knowledg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he road less traveled", *Nursing Science Quarterly*, 9(1): 10-16, 1996. DOI: <http://dx.doi.org/10.1177/089431849600900105>
- [8] E. H. Hwang, D. U. Jung, M. J. Kim, H. K. Kim, J. S. Shin, "Comparison of frequency and difficulty of care helper job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and client hom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101-112, 2012.
- [9] M. Y. Kim, J. H. Park, K. J. Lee, J. M. Yoon, "The Study on Care Worker's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t Long-Term and Home Care Service Cent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2: 361-382, 2013.
- [10] K. W. Um,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training and certification system of the caregiver",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10(2): 87-112, 2011.
- [11] M. Morse,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A contemporary dialogue". London: Sage, 1991.
- [12] M. Sandelowski,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merican Nursing Science*, 8(3): 27-37, 1986. DOI: <http://dx.doi.org/10.1097/00012272-198604000-00005>
- [13] S. Cavanagh, "Content analysis: Contents, methods and applications: qualitative data analysis", *Nursing Research*, 4(3): 5-16, 1995. DOI: <http://dx.doi.org/10.7748/nr1997.04.4.3.5.c5869>
- [14] S. H. Lee, S. I. Lee, I. J. Kim, "Hard choice: women's work, career, and motherhood",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15(2): 107-132, 2010.
- [15] N. Yoo, Y. D. Park, K.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the choice at artistic major: based on SCCT model",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12(3): 361-375, 2007. DOI: <http://dx.doi.org/10.18205/kpa.2007.12.3.007>
- [16] Y. H. Nam, Y. S. Kim, J. C. Kim,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of caregivers about the adaptation proces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4: 287-321, 2014.
- [17] F. Leaderbetter, "Legal issues: dismissing a nurse or care worker", *Nursing & Residential Care*, 10(8): 404-405, 2008. DOI: <http://dx.doi.org/10.12968/nrec.2008.10.8.30633>
- [18] M. Devlin, S. McIliffrick, "The role of the home care worker in palliative and end of life care in the community setting: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Nursing*, 15(11): 526-532, 2009. DOI: <http://dx.doi.org/10.12968/ijpn.2009.15.11.45491>
- [19] C. M. Kim, *The coping process of family caregivers for demented elderly at hom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이 봉 숙(Bongsook Yih)

[정회원]



- 2007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09년 3월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사회심리간호, Qualitative Research